

「모시」와 「모란」의 어원고

진태하(陣泰夏) • 仁濟대학교 석좌교수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룬 시대부터 착용한 옷감으로는 먼저 ‘삼베’를 들 수 있다.

‘삼’의 한자(漢字)인 ‘마(麻)’자가 은대(殷代)의 갑골문(甲骨文)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주대(周代)의 금문(金文)에 ‘麻’의 자형으로서 처음 나타난다. 삼은 껍질을 베끼어 반드시 집 밑의 그늘에서 말려야 하기 때문에 ‘麻’는 곧 지붕 밑(厂)에서 마피(麻皮, 𦉰)를 말리는 것을 나타낸 회의자(會意字)이다.

고려시대 우리말을 송(宋)나라 손목(孫穆)이 수록해 놓은 계림유사(鷄林類事)에도 ‘麻曰三’이라고 한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컫고 있는 ‘삼베’는 적어도 계림유사(鷄林類事)가 편찬된 서기 1103년¹⁾ 이전부터

1) 계림유사의 편찬 연대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동아출판사 간행 『세계대백과사전』에는 미상이라 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1103’년에 편찬된 것이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356 어휘가 수록되었다고

쓰인 우리의 고유어(固有語)임을 알 수 있다.

‘삼베’는 곧 ‘삼[麻]’으로 짠 천이란 말인데, ‘베’는 어떤 말에서 온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계림유사(鷄林類事)에는 ‘布曰背’, ‘苧布曰毛施背’로 표기하여 놓은 것을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마포(麻布)’만을 ‘베’라 하지 않고, 일반 직물의 통칭(通稱)으로서 쓴 것을 알 수 있다.

‘베’의 고어(古語)를 조선(朝鮮) 초기 문헌에서 찾아보면 ‘뵈’²⁾이다. ‘布’의 현재 한한음(韓漢音)은 ‘포’³⁾이지만 반절음(反切音)은 광운(廣韻), 집운(集韻) 등에 ‘博考切’ 곧 ‘보’로 표기되어 있고, 현대 중국음(中國音)은 [bu]로 발음하는 것을 볼 때, ‘布’의 고음(古音)과 우리말의 고어(古語) ‘뵈’가 동계어(同系語)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布’의 음에서 우리말의 ‘뵈→베’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필자는 오히려 고대 우리말의 구어가 ‘布’의 자음(字音)으로 취해졌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布’의 갑골문은 지금까지 출현된 바 없고, 주대(周代)의 금문(金文)에서부터 ‘𠂔’⁴⁾의 형태로, 곧 ‘父’와 ‘巾’의 형성자(形聲字)로 만들어졌으나, 우리말의 ‘뵈’는 의복의 발달 역사로 보아 주대(周代)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뵈’가 ‘布’의 자음(字音)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

설문자해(說文解字)에서 허신(許慎)은 ‘布’에 대하여 ‘枲織也’ 곧 ‘시(枲)’로 짠 직물이라 하고, 단옥재(段玉裁)는 枲(시)를 ‘屋下治之曰麻’ 곧 집 밑에서 말리어 손질하는 것을 ‘麻’라고 한다고 풀이하였으나, 옳지 않

하였는데, 361 어휘로 수정되어야 한다.

- 2) 석보상절(釋譜詳節)(13:52),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5:18) 참조.
- 3) ‘布(부→포)’와 같이 중국에서는 평음의 한자음이 한국에서는 격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包(바오)→포, 必(비)→필, 筆(비)→필, 鬲(도우)→투, 忠(중)→충
- 4) 갑골금문자전(甲骨文辭典)[사천대학역사계 고문자연구실(四川大學歷史系古文字研究室)] 566쪽 참조.

다고 생각한다. 엄연히 ‘麻’와 ‘杲’는 품종이 전혀 다른 식물인데, 허신(許愼)이나 단옥재(段玉裁) 같은 대학자들도 삼[麻]과 모시[杲]를 구별하지 못하였음은 매우 의문스러운 일이다.

‘麻’와 ‘杲’의 자형으로 살펴보아도 삼[麻]은 일년생인데 대하여, 모시[杲]는 다년생이므로 ‘목(木)’ 부수자(部首字)로 구별한 것으로도 종(種)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여 “참새 열씨 까듯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열씨’는 곧 ‘삼씨’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도 ‘삼’은 분명히 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이아(小爾雅)에서 ‘麻紵葛曰布’ 곧 삼, 모시, 쑤의 섬유질을 취하여 짠 것이 ‘布’라고 설명하였으나, 우리말에서는 ‘베옷’이라 하면 ‘삼베’로 만든 옷만을 칭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질 옷감으로 처음 만들었던 것은 ‘麻[삼]’으로 짠 ‘布[뵈]’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麻布’만을 ‘布[뵈]’라고 일컫다가 뒤에 옷감의 재료가 늘어나면서 ‘모시베[紵布], 쑤베[葛布, 絺布], 무명베[綿布]’ 등처럼 확대되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무명’은 곧 ‘木棉’의 중국음 ‘무몐’이 변한 것이다.

필자가 계림유사(鷄林類事)를 연구하면서 ‘苧曰毛施’와 ‘苧布曰毛施背’의 ‘毛施’는 고려어의 취음(取音) 표기로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모시’임에 틀림없겠으나, 그 어원(語源)이 대단히 궁금하였다.

그러던 중 근래 옛 문헌을 뒤지다가 ‘모시’의 어원을 찾게 되어 필자는 마치 광부가 지하 수백 척 속에서 금맥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기뻐서 나도 모르게 혼자 탄성을 질렀다.

제민요술(齊民要術)에 “麻有雌雄, 雄者名杲, 雌者名苴”이라 하여 삼에는 암수가 있고 수컷은 杲(시), 암컷은 苴(저)라 일컫는다 하였고,本草綱目(本草綱目)에서 이시진(李時珍)은 “苧麻, …… 宿根在土中, 至春自生, 不須栽種”이라 하여 모시[苧麻]는 숙근(宿根)으로서 봄에 스스로 나기 때문에 씨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며, 형음의종합대사전(形音義綜合大字典)에서는 ‘杲[모시풀 시]’를 풀이하여 “牡麻曰杲, 麻之無實者, 夏至開花, 榮而不實, 亦曰夏麻, 雄麻” 곧 ‘牡麻’[수컷삼]을 ‘杲’라 하는데 삼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하지에 꽃이 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다고 하고 또는 ‘夏麻’, ‘雄麻’라고도 일컫는다 한 바와 같이 ‘枲’를 중국에서는 ‘삼’의 일종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모시 시’자로 일컬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苴布(저포)’는 ‘삼베’를 일컫는다.

한중(韓中) 양국에서 동명이물(同名異物)의 경우는 적지 않다. 예를 들면 ‘柏(백)’이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를 지칭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이른바 ‘향나무’라고 하는 침엽수(針葉樹)를 지칭한다. 중국에서는 잣나무에 해당하는 단독의 한자는 없고, 소나무의 일종으로 보고 ‘오엽송(五葉松)’이라고 칭한다.

‘枲’는 진대(秦代)의 소전(小篆)에 의 자형으로서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삼(麻)’보다는 늦게 옷감의 재료로 재배된 것 같다.

‘모시’는 곧 ‘牡枲’의 한자음이다. ‘牡’는 ‘수컷 모’자로, ‘枲’는 꽃은 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3.

이와 비슷한 예로 ‘牡丹(모란)’을 들 수 있다. ‘모란꽃’도 꽃은 피지만 열매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牡’를 취하고, 모란꽃은 여러 가지 색이 있지만, 붉은색 모란이 가장 아름답다 하여 ‘丹’(붉을 단)을 취하여 ‘牡丹’이라 칭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丹’이 ‘란’으로 변음되어 본래 ‘牡丹(모단)’을 ‘모란’이라 일컫게 되었다. ‘丹(단)’이 ‘란’으로 변음된 것은 동국정운(東國正韻)에 “端之爲來, 不唯終聲, 如次第之第, 牡丹之丹之類” 곧 우리나라 한자음에서 ‘ㄷ’이 ‘ㄹ’로 변음된 것은 종성에서뿐만 아니라, 초성에서도 ‘次第’가 ‘차례’, ‘牡丹’이 ‘모란’으로 발음되는 것과 같다고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속음화(俗音化) 현상이다. 더구나 ‘牡’를 ‘牧’으로 잘못 써서 ‘牧丹(목단)’이라고 흔히 일컫기도 한다. ‘牡丹’을 ‘牧丹’으로 오기(誤記)한 것은 신라(新羅) 때 당(唐)나라에서 선덕여왕(善德女王)에게 모란씨를 보내왔다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唐太宗送畫牧丹, 三色紅紫

白, 以其實三升, 王 見畫花曰 此花定無香. 仍命種於庭, 待其開落, 果如其言”이라 한 기록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다.

‘牡丹’도 씨로 번식하지 못하는데, 씨를 보내왔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씨와 함께 보내 온 ‘牡丹花’ 그림에 벌 나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덕여왕이 미리 이 꽃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과연 심어서 꽃을 피워보니 향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牡丹花가 피었을 때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것을 보면, 이 말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牡丹’을 ‘牧丹’으로 잘못 쓴 명칭이 만주지역에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연변(延邊)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牡丹江’을 ‘목단강’이라고 칭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牧丹江’이라고 쓰지 않는데도 우리 동포들만은 ‘목단강’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만주 지역이 우리 동포들이 오래 살아온 땅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

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모시’는 본래 ‘牡枲’의 한자에서 온 식물명이었는데, 오늘날은 ‘모시’를 그 직포(織布)의 명칭으로 쓰고 있으며, 식물로서의 명칭은 ‘모시풀’이라고 일컫는다.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저자 손목(孫穆)이 ‘麻曰三’, ‘布曰背’, ‘苧曰毛施’, ‘苧布曰毛施背’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가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苧曰毛施’라고 취음(取音)해 놓은 것을 보면 ‘苧’의 고려어(高麗語)인 ‘모시’가 한자어 ‘牡枲’라는 것은 몰랐던 것 같다. 또한 ‘牡枲’는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던 어휘로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아니라, ‘천동(天動)’이나 ‘주사위(朱四位)’⁵⁾처럼 우리나라에서 조어(造語)한 한자어임을 알 수 있다.

5) ‘주사위’에 대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고유한 우리말로 되어 있으나, 한자어 ‘朱四位’에서 온 말이다. 졸문 『한글+漢字문화』통권 28호(2001년 11월호) 67쪽 참조.

고려 말기 한어회화 교본(漢語會話敎本)으로 편찬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중에 “毛施布, 卽本國人呼苧麻布之稱, 漢人皆呼曰苧麻布, 亦曰麻布, 曰木絲布, 或書作沒絲布, 又曰漂白布, 又曰白布. 今言毛施布, 卽沒絲布之訛也, 而漢人因麗人之稱, 見麗布卽直稱此名而呼之. 記者者因其相稱而遂以爲名也”⁶⁾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毛施’란 한자 표기도 손목(孫穆)이 임의로 취음(取音)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렇게 표기했던 것이다.

여기서 ‘毛施布’는 ‘沒絲布’의 와칭(訛稱)이라고 언급하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沒絲布’는 우리말의 ‘모시베’를 중국에서 ‘沒(mot)’음의 입성음(入聲音)이 탈락된 뒤에 곧 송대(宋代) 이후에 취음 표기(取音表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양연승(楊聯陞)의 노걸대박통사이적어법어휘(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 중에서 “歷朝中國與高麗通好, 從高麗來的禮物單子上, 差不多總有苧布, 而且常常佔第一位. 其重要性可想. 直到民國初年, 還有人特別喜歡用毛施布(讀如毛絲布)作面巾. (中略) 元代毛施布在中國受歡迎的情形, 可從元曲中看出. 漁樵記第二折, 旦白: ‘你將來波, 有甚麼大綾大羅, 洗白復生高麗沒絲布.’ (中略) 沒絲布就是毛施布, 細而耐洗, 所以說洗白復生. (中略) 毛施布之名, 是由‘muslin’轉借而來, 似無可疑. 不過‘muslin’一般是棉布, 而高麗毛施布是苧布, 所以還是可以分別的.”⁷⁾라고

6) ‘모시포’는 곧 본국인(중국인)이 ‘저마포’를 일컫는 명칭인데, 한인(漢人)들은 모두 ‘저마포’ 또는 ‘마포’, ‘목사포’라 부르고, 또는 ‘몰사포(沒絲布)’, ‘표백포(漂白布)’, ‘백포(白布)’라고도 쓰며, 오늘날은 ‘모시포(毛施布)’라고 말하는데, 곧 ‘몰사포(沒絲布)’로의 와전은 한인(漢人)들이 고려인들의 일컬음에 따라서 ‘여포(麗布)’를 보고 곧바로 이 이름을 일컬어 부르는 것이다. 기록하는 사람이 그 서로 부르는 발음에 기인해서 드디어 이름이 된 것이다.

7) 역대 중국과 고려 사이에 통래가 좋아, 고려에서 오는 예물 단자상에 거의 모두 ‘저포(苧布)’가 들어 있었으며, 또한 늘 첫째를 차지하였다. 그 중요성을 가히 상상할 만하다. 민국 초년까지 또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모시포(毛絲布라고 읽음)로 면건(面巾)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였다. (중략) 원대에 모시포가 중국에서 환영을 받은 상황은 원곡(元曲) 중에서 볼 수 있다. 어초기 제이절 대화에서 “너 장래 어떤 대롱(大綾) 대라(大羅)라도 빨수록 하얗게 되살아나는 고려 모사포(沒絲布).” (중략) 모사포는 곧 모시포(毛施布)인데, 가늘면서도 세탁에 강한 까닭에 ‘洗白復生’ 곧 빨수록 흰색이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모시포의 명칭이 ‘muslin’으로 전래되었음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muslin’은 일반적으로 면포(棉布)이고, 고려 모시포는 저포(苧布)이기 때문에 역시 분별해야 할 것이다.

고증(考證)한 것으로도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모시’가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인들에게 ‘洗白復生’이라고 칭할 만큼 특별히 호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모시풀이 중국 각성(各省)에 흔하여 서양에서는 ‘支那草’라고 일컬을 만큼 중국 자체의 모시베도 흔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시를 더 좋아했던 것 같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시가 서역(西域)까지 전파되어 ‘muslin’이라고 일컬어졌고, 일본에서는 ‘가라므시(からむし)’라고 일컬은 것을 보면, ‘모시’라는 말은 비록 중국의 한자 ‘牡臬’에서 연원(淵源)되었지만, 직물로서 ‘모시’는 우리의 것이 일찍이 세계 으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純祖) 원년(元年)(1801) 이전까지 한양(漢陽)의 육주비전(六注比塵)에 모시만을 깔고 사던 ‘苧布塵’이 있었던 것으로도 모시가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삼베’는 ‘안동포(安東布)’를 제일로 치고, ‘모시’는 ‘한산(韓山) 모시’를 제일로 치는데, 그 역사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의 ‘모시’를 중국에서 취음표기(取音表記)하여 ‘木絲布, 沒絲布, 毛施布, 毛絲布, 襪絲布.’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도 ‘모시’란 말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옷감으로 회자(膾炙)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모시’의 어원은 비록 한자 ‘牡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임도 입증할 수 있다.